

예 시 답 안 (인문·체능계)

■ 논제 1

공감에 대해 [가]는 인간의 심리와 인성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사유를, [나]는 두뇌의 특정 부위의 크기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자연과학적 통찰을 전개한다. [가]는 공감이 후천적 학습을 통해 발전함을 '놀이'를 근거로 설명하며, [나]는 공감이 생물학적 조건에 지배됨을 두뇌의 '대뇌신피질'을 근거로 분석한다. 접근방식은 다르나, [가]와 [나]는 모두 공감을 사회 관계 및 조직의 토대가 되는 능력으로 보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에서 놀이는 타자성에 대한 안전한 실험의 기능으로 인해 건강한 인성 형성의 핵심이 된다. 놀이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상황이라면 위협적일 수 있는 타자와의 만남을 즐겁게 경험하게 한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공감과 상호 호혜의 타자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

[나]에서 공감적 유대감은 두뇌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대뇌신피질의 크기와 비례 관계에 있다. 대뇌신피질의 크기는 사회 집단의 크기,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도, 복잡한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능력의 정도 등을 결정한다. 공감적 유대감은 사회적 동물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으로, 뇌의 구조에 의해 형성, 발전한다. (601자)

■ 논제 2

공감은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공감은 감각, 감정, 이성, 마음, 영혼 등 인간이 지닌 모든 영역에 관계하며,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입장전환, 상호성, 상상력 등의 다양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공감의 작동은 인간의 본성과 개인의 기질, 상황의 논리 등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자와 세계를 위한/향한 실천이 동반될 때 온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는 위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서로 모르는 타인들 사이에 일어난 타아일체의 공감을 다룬다. 순식간에 생사가 엇갈리는 재난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극대화하며,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이기심 역시 극대화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진과 화재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발휘한 것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자아였다. 타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감정이입 및 입장전환의 사고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경지였다.

[라]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호성에 의한 공감을 묘사한다. 이 놀라운 상호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상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한 공동의 입장에 대한 통찰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서로 죽여야 하는 적대적인 상호성을,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공격하지 않는 우호적인 상호성으로 바꿈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균형점에 도달한다. 죽음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상호 교환하는 공감의 방식은 제한된 형태로나마 전쟁의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인간이 서로 존중해야 할 최후의 대상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일깨운다.

[마]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낯선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을 그린다. 시 속의 '나'는 어느 관공서를 지나다 그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서기'를 목격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나'의 공감에는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감정이입, 입장전환의 사고, 타자가 처한 어려움을 헤아리는 상상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 삶의 출구가 막힌 '서기'에 대한 공감은 "희고 거대한 서류몽치로 변해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들"에서 보듯 사물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이른다. 이는 타자를 주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전유와 구별된다. (1,200자)